烟村公派世譜序

悠久한 歲月속에 半萬年의 歷史가흘러갔다 그동안國運의 盛衰浮沈으로 時代의 潮流에 따라우리人間도이러한歷史의 흐름속에至今에이른것이라 其先이 自唐淸河而來라는 考證이 있는 우리 全州崔氏의 系譜는 高麗門下侍中文成公 諱阿 을 始祖로뫼시고至今으로부터二百九十八年前에 監察公世榮께서 草成一卷大同譜를 創刊하시였으니當時七十餘歲의 老齡으로 交通과 通信이 不便하고 科學技術이 發達되지못했던時代에 長久한 時日을두고 그얼마나勞苦가많었을까推想할때 崇高한精神과 赫赫한業績에 깊은感謝를드리는바이다 四次의 大同譜와 數回의 各級派譜를 發刊하였으나唯獨 우리烟村公派三兄弟孫이合譜치못하였음을痛嘆한나머지南原圭鍾과 靈巖洛定이 合議發起하여 壬戌三月三日初會于全州豊南宗坫하고 同四月五日再會于靈巖鹿洞書院하여 代表者總意로決議하야趣旨通文을 發送하고 諸般規定에 依하여 收單에着手하니 晩時之嘆은있으나宗族의敦睦을加一層두터히하고後孫의繁榮을爲하여 同慶에 勘하는바이다今次派譜는 淵源系統과 昭穆을明確히 補完하고 時代의要請에 따라未婚女도入單하여 內容을一新 하였으니 實로 宗族의 大典이라하겠다歷史的으로볼때族譜는 옛날中國에서 始作되여처음에는王室系統과 帝王年代表를爲主로하다가漢나라를거쳐 魏晋時代에이르러서는하나의學問으로 譜學을 硏究하였다고한다그리고우리나라에서는李朝肅宗時代에야 譜學을 硏究發刊하였다。

또한 日本美國英國佛蘭西西獨等 여러나라에서는 오래前부터 譜學硏究에非常한關心을갖이고있으며 美國과 奧地利에서는 國際族譜學會議를開催한다고한다이러한事例를 勘

案할때 우리나라에만 族譜 가있는것으로 生覺하거나 族譜自體를 封建殘滓視하고 年老層만의 關心事로돌이려하는것은도리어 現代潮流를度外視하는 態度라하겟다今次族譜發刊을契機로 靑史에 빛나는 祖上文獻을後世에傳하는同時에宗族間에敦睦을두터히 히고 人材養成을圖謀하여 千秋萬代에無窮한繁榮을祈願하면서 今次族譜發刊에理解와 協助를하여주신宗員여러분과譜任諸賢의勞苦에 깊은感謝를드리면서삼가序言으로 삼는 바이다。

一九八三年癸亥初夏 後孫 圭煥 謹序

記

民族은 곧氏族이요 氏族은即血統이니 族譜는그血統을體系化한記錄이며 民族發展의細分한歷史이기도하다 우리全州崔氏의始祖文成公으로부터于今三十世에 近千年의 歲月이 내려오는동안後孫또한 數拾萬에達하는 大姓이다 이에따른族譜또한版을거듭한지 大同譜가四回며 各級派譜는數回에이르렀다譜冊內容을보면 縱的으로 本支派의昭詳한系統과橫的으로는 行列字統一로 尊卑와寸數며生卒年月日은勿論全國에散在한 先塋과 先世文獻等一目瞭然하게 譜中에 모두收錄되였으니開卷一覽에追遠之心이 加一層더하여짐을느낄때名門의 後裔로서 確然한存在와 높은 矜持를갖이고그어느 氏族보다도 模範的行動으로 祖上의빛나는얼을더욱빛내야할것이다 이譜冊을完成하기까지 숱한어려움을 겪으신任員여러분께敬意와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癸亥麥秋之節 后孫 圭洙 謹識

跋

祖上을 認定하는 者나의 存在를 生覺 하지 않을수없으며가지와잎이 茂盛하기를바라는者 어찌그뿌리를生覺하지않겠는가무릇 人間이 萬物의 靈長이라함은自己生命의根源을찾고피 가물보다진하다는 天倫의 關係를 生覺하는것이다옛말에도同姓同本은百代之親이란 情本 이있다하였거든 하물며 血統이 同一한 親族을 相逢하였을때祖上을 生覺 하게되고 祖上 을 生覺하면 骨肉之情이샘솟는것이바로天倫의 情인것이다이러한 同祖同根의 血統을이어받어 連綿히 繼承하는우리宗族들은 今番發刊하는 烟村公派譜를契機로더욱 族誼를두터이함 과同時에 祖上의燦爛한 文獻을 빛내주시기 祈願하는 바이다。

癸亥四月 日 后孫 秉庸 謹稿

跋

夫譜也者는 所以收斂宗族하야 明其係統하나니 係統이明則遠近親疎之分이明矣라 知遠近하고 察親疎하면 倫理自定하야 愛族敦睦之情이自然隨之矣리니 知愛族 이면 必有尊祖之心이至矣리라 修譜之義豈可輕易哉리오 前人之修譜도亦志乎斯而爲之 하야累年積功에 勞苦莫甚하고 盡力開發이나 未得其眞하야 漏落宗人이間多有之하 야宗派宗人이 左徃右徃하다가 次季派 또納譜者가 有之하고 次季派宗人도 亦然 하니

此난元來族譜를疎忽이認識한元因이아닌가思料된다 尤爲所恨者는文成公后裔大同譜와中郎將公派譜난數三次同譜하여도惟我烟村公派譜난一未合同하고宗派는宗派대로 支派는支派대로 各各修譜하니本是親兄弟之后裔로不過二十世에視之如塗人하니嘆之何及이리오久而相議譜事라도未遂其事터니壬戌三月三日에春潭圭鍾君與雲崗洛定君으로發起於完州周德齋하니烟村后裔齊聲應之하야是年四月五日에宗支派代表諸人이會于靈岩鹿洞書院하야派譜規約及業務進行事를締結하고選出任員하니吾門之瑞光이自此榮耳라然編輯에臨하니悚懼之心을難抑이라然諸宗僉位의協助와任員諸賢의誠意며特히任實族人圭奉君은正書로불어校正監印은勿論各地를누비며寫眞撮影이며資料收輯에不廢風雨하고獻身勞力한功績은實로宗族으標範이라 然이나未洽之点이不無하오나吾宗族諸賢은以此로爲龜鑑하야培前의尊祖愛族之心으로爲己心하면今譜난雖或有未洽之處라도以此爲幸耳며任員諸賢에게感謝하는 바이다。

一九八三年癸亥 月 日 后孫 圭直 謹跋

京譜序

竊嘗聞하니 程夫子有言에曰宗法廢而後世譜牒이尙有遺風하니 譜牒이又廢하면人家가不知來處하고骨肉이無統하야雖至親이라도恩亦薄이라하고又曰收宗族厚風俗하

절상문 정부자유언 왈종법폐이후세보첩 상유유풍 보첩 우폐 인 가부지래처 골육 무통 수지친 은여박 우왈수종족후풍속

야 使人不忘本은 須是明譜系라하니 噫라 至親이 恩薄에 固可謂風俗不厚어든 況爲人而不知來處則是는 與知父而不知祖者로 所爭이 無幾矣라 豈不大可懼哉아 此는 程夫子之所以惓惓明譜系者也라 惟我東方士大夫가 家藏譜牒하야 累經兵燹에 散亡殆盡이러니 幸自近世以來로 從事譜牒者或多有之로대 獨我宗族은 散在遠外하야 會合이 未易하니 嘗欲講明而不得者久矣러니 迺於戊戌年間에 與文貞公宰子孫으로 同聲發文하야 通告于京外諸宗하야 裒粹其各派家乘所記而其編摩之役則一委於文貞公後孫崔寬令公矣러니 因其出宰하야 又轉及於世榮하니 蓋當初에 以先祖文成公으로 誤認爲文貞公長氏하야 將欲合譜而然也러니 世榮이 替受是役以後에 合諸譜草而細究之則其諸本이 不翅十數而皆以文成文貞으로 爲伯仲則崔純爵之稱以文成上祖은 固無足怪也요 甚則至於上自崔均으로 下迄允仲凡十一世에 序之以崔純爵之先派하고 或以崔明及立秤으로 又加於文成公之上世하니 蓋其本源之同異와 世代之先後는 初不加意하고 而苟有所聞見則輒以爲幸하야 幷列而混稱之하니 此豈獨記者之過也리오 實由於譜牒之不明則程夫子之則을 於此에 益可驗矣로다 考之於麗史列傳則崔均及

其下之於純爵에論其世代하니亦甚紕繆則何況其祖孫之辨乎리오至於純爵之於文成公에證之以少尹公墓表則不相系屬이亦明矣로다文成文貞之兄弟與否를又何論哉아若其崔明立秤之稱은旣無可據明文而少尹公墓表가如彼其分曉則其可率意忘附而反爲狄樞密之罪人哉아然이나此事가甚重하야亦不可以一人之諛聞寡識으로草草斷定하야以犯不韙之誅故로旣以商確於宗黨하고又復就質於當世賢德之深於姓氏學者하야斷自文成公爲始祖하야定著的傳之世次而其已上世系則置之於不敢知之域하니固不害爲愼之道어든何況黃太史之爲譜也에謂七世以上은遠不知하고疑不明而略而不書則豈非後人之所當法者乎아旣已分譜則固當隨即効愚之不暇又有一事者가亦甚難處하니何者오蓋大護軍龍角이稱以改名永濡하야旣已立董於海州하고又爲和順崔之始祖하니不但諸宗之所錄이如此라至若和順譜跋은乃故訒齋現氏之所撰出而其言이丁寧反覆하야至引石溪公命龍而爲證左하니夫以訒齋之忠信博雅와石溪之聰明特達로俱非妄言之人則可謂傳之後世而無疑온況兩門諸宗十有餘員이昔在戊寅冬에約會於湖中東鶴寺하야相與通譜하고仍記其事曰摭古詢今

기하지어순작론기세대 역심비무즉하황기조손지변호 지어순작지어문 성공증지이소윤공묘표즉불상계속 역명이문성문정지형제여부 우하론재 약기최명입평지칭 기무가거명문이소윤공묘표 여피기분효즉기가솔의망부이반위적추밀지죄인재 연차사심중 역불가이일인지유문과식 초초단정 이범불위지주고 기이상확어종당 우부취질어당세현덕지심어성씨학자 단자문성공위시조 정자적전지세차이기이상세계즉치지어불강지지역 고불해위신지도 하황황태사지위보야 위칠세이상원불지의불명이략이불서즉기비후인지소당법자호 기이분보즉고당수즉효우지불가이유일사자 역심난처 하자계대호군용각 칭이개명영유주 우위화순최지시조 불단제종지소록 여차지약화순보발 내고인제현씨지소찬출이기언 정령반복 지인석계공명용이위증좌 부이인제지충신박아석계지총명특달 구비망언지인즉가위박지후세이무의 황양문제종십유여원 석재무인동 약회어호중동학사 상여통보 잉기기사왈척고순금

하고 廣輯聞見하야 以至敘昭穆之序와 講敦睦之義則其所以信而有徵者亦非向來一二空言之比者乎아 雖然이나 崔海州之死事는 在於至正辛卯而著於休鳩巖之墓表하고 大護軍之行遣은 出於至正丁酉而載於勝國之信史則首尾七年之間에 死者復生이 固無是理온 況大護軍受玦之日에 仍揭舊諱而論責者는 何也오 以此觀之컨대 自是別人이 章章矣라 無乃大護軍責籍이 或在和順而後來更名이 又與崔海州로 同稱故로 仍起後生之疑誤하야 以至於此者耶아 是未可知也라 然이나 休鳩巖之碑가 猶不及其本派世系則欲只據此旁證而直斷其數百年來로 不敢生疑之地者가 豈不難哉리오 且元之子孫中에 宦達이 相繼하야 必有金石可據之文이니 以此冀行하고 遲回等待하야 積以歲月則人或不諒而責以怠緩者固有之區區요 亦恐一朝溘然이면 終負不忘本之託也러니 何幸間者에 得聞元之子自海가 果有牲石之文을 求得於金山而讀之則眞是崔海州之子孫而誤屬於大護軍者也라 其碑文中에 崔海州父名을 旣稱繼臣則雖在他人에도 亦此以妄認自咎어든 況其爲後孫者乎아 然이나 猶以過房爲疑者하니 此는 無他焉이라 承譌已久에 猝難解惑而然也오 且有一宗人이 謂世榮曰自十數世僞舛而未釐者를 今

광집문견 이지서소목지서 강돈목지의즉기소이신이유징자역비향래일 이공언지비자호 수연 최해주지사사 재어지정신묘이저어휴암지묘표 대호군지행견 출어지정정유이재어승국지신사즉수비칠년지간 사자복생고 무시리 황대호군수결지일 잉계구휘이논책자 하야 이차관지 자시별인 장장이 무내대호군책적 흔재화순이후래갱명 우여최해주동칭고 잉기 후생지의오 이지어차자야 시미가지야 연 휴암지비 유불급기본파세계즉육형거차방증이직단기수백년래 불감생의지지자 기불난재 차원지자 손중 관달 상계 필유금석가거지문 이차기행 지회등대 적이세월즉인혹불량이책이태완자고유지구구 역공일조개연 종부불망본지탁야 하행간자 득문원지자해 과유성석지문 구득어금산이독지즉진시최해주지자손이오속어대호군자야 기비문중 최해주부명 기칭계신즉수재타인 역차이망인자구 유이과방위의자 차무타언 승위이구 졸난해혹이연야 차유일종인 위세영왈자십수세위승이미이자 금

개거실이간명 차실오문지행이모야 비모지후이상불견경하야세영
皆据實而刊明하니 此는實吾門之幸矣라某也가非某之後而尙不見正은何也오世榮
왈차즉사면여전유별하니개전즉개유고교지적고지이수기근득소석이
曰此則事面이與前有別하니蓋前則皆有考校之跡故로遲以數紀에廑得昭釋矣이어니
차사기세대미원위기자손자필무난변지리즉수혹이불재어상세묘각
와此事는其世代未遠하야爲其子孫者가必無難辨之理則雖或以不載於上世墓刻으
위의연참석지후제손지시출자상다하가이차구의지어무가의지처
로爲疑나然이나鑱石之後에諸孫之始出者尙多어늘何可以此求疑之於無可疑之處
호리기여차우무소거즉집시역자하감경의어기간재우유일설언혹
乎아理旣如此하고又無所據則執是役者何敢輕議於其間哉아又有一說焉하니間或
유서출지인이제종지소기불일원대지사적난적고적서지계분수엄이
有庶出之人而諸宗之所記가不一하고遠代之事蹟을難的故로嫡庶之界分이雖嚴而
의사지간불능자단고준종후지의명백역변자외일개거기서자이
疑似之間에不能自斷하고姑遵從厚之義하야明白易辨者外에一皆去其庶字하야以
사일후지지자유아동종기혹관과이서지부야자여제본우다저오
俟日後之知者하노니惟我同宗은其或觀過而恕之否耶아自餘諸本이又多牴牾하야
자녀지역칭자유지명자지불동자유지차고난어일일왕복이고증고형
子女之易稱者有之하고名字之不同者有之하니此는固難於一一往復而考證故로只
거기근종소록이위취사지대취미지과면대단착류호부희인가수유보첩
據其近宗所錄而爲取舍之大致하니未知케果免大段錯謬乎否아噫라人家雖有譜牒
이기세계지난명륜서지다오미유심어차즉실위오문지일대불행적득일이
而其世系之難明과倫序之多誤가未有甚於此則實爲吾門之一大不幸이요適得一二
고거문자첩불자규망가변석기여법례역다조오공유소루지실
故据文字를輒不自揆하야忘加辨折하고其餘凡例도亦多齟齬하야恐有疎漏之失하
오니惟願諸宗은各隨見聞하야益加斤正하야俾得至當之歸하면尤爲幸甚이라嗚呼
유원제종각수견문익가변정비득지당지귀우위행심적득일이오호

보이성이
라譜已成矣라油然孝悌之心과收族厚俗之義가豈但今我諸宗之所同勉也리오抑析
유연효제지심 수족후속지의 기단금아제종지소동면야 역석
행어후래자개거무궁운이
幸於後來者蓋去無窮云爾라

숭정후병인정월
崇禎後丙寅正月 後孫 전행 前行 사헌부감찰 司憲府監察 세영근식 世榮謹識

全州崔氏烟村公派世譜篇之一

一世

始祖 崔阿 최아

高麗文科門下侍中完山君
諡文成諸本多以文成公爲文貞公宰之長氏以上護軍純爵爲其始祖在昔戊戌年間京中諸宗始議修譜文貞公后孫寬掌編摩之任未及卒業文成公后孫世榮繼相其役乃以少尹公碣文爲證遂離而二之然此則誠有可疑而難斷者也盖以文成文貞兩公諱字字義觀之似是爲伯仲行且兩家子孫世世相傳謂之同宗從古迄今一未嘗通婚則安知其不爲一源分派而遽以碣文中數字直謂之不相繼屬乎然文獻有不足徵者今竊附於傳疑之義用黃太史故事以文成公爲始祖云
按監察公世榮草成一卷譜文成公墓在周德山云而故老相傳文成公玄孫烟村公墓前越四古塚下有一大人葬公墓云故
正廟丙辰開審封塋不得誌碣諸宗議設壇行祭慶基殿令韓山李秉運撰碑文

二世

子 龍生 용생

文科按廉使
忠定王二年
至正庚寅以臺諫爲慶尚道按廉使嫉官寺恬寵上國流毒東民 其惡以示國人宦者朱元之訴于王以金有謙代之公遷居泗川墓泗川豊井洞坤向云

子 龍角 용각

文科壯元侍制寶文閣大提學檢校大護軍以道德文章事載完山誌以忠節載三綱錄
貞夫人陽川許氏中護軍瑄女
知東州事程孫墓所失傳故於考墓北設壇享祀
按恭愍王朝公累徵不辟優遊於威鳳山水之間置亭閣有詩曰自喜從王事因而占勝遊山鴉啼隴樹野鴨泛溪流帶雪群峰瘦綠村一逕幽晚來逢絶處立馬更遲留菴中留置遺稿一櫃及琉璃壺爵與鐵杖至今遺存

三世

子 君甫 군보

子 田雨 전우

版圖正郎

女 吳蒙乙

開國功臣寶城君

子 邑 호

文科版圖書

子 哲 철

版圖典書
諡文簡公按李牧隱穡黃厖村喜權陽村近皆以一字作名爲道義交而牧隱不肯出

四世

子 澤 택

內侍福昌院衛典

女 吳召男 忠武衛

子 吳慶 寶山君

子 盤 반

文科禮曹參判

子 光濟 광제

文科禮部員外郎江原都使
一本無光字

五世

子 斯泌 사필

文科中直大夫司僕寺正按
書南溟舊集斯泌作斯汝司僕作司醞誤

子 斯沚 사지

子 斯江 사강

子 孟良 맹양

文科監務

子 叔良 숙양

文科禮曹佐郎戶曹參議

子 季良 계양

女 任鼎 임정

女 全思美

文科同知天安人

子 仲紹 중소

司直掌樂院主簿

女 朴晉

序一全州人郡事父竹堂處

全州崔氏烟村公派世譜卷之一